

대외경제전문가 「풀」 북한경제연구회 결과보고

2004. 3. 18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I. 행사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4. 3. 18. 16:30 ~ 18:30
-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2. 주제 및 일정

가. 발표주제

- 1) 북한의 산업입지 현황 및 적정 산업배치 모형
 - 발표자: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
- 2) 효율적인 대북한 투자를 위한 입지선정 전략
 - 발표자: 연세대학교 이태정 교수

나. 회의 진행 순서

- 16 : 30~17 : 30 주제발표
- 17 : 30~18 : 30 자유토론

3. 참석자 명단

-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
- 이태정 연세대학교 교수
- 김광용, 한양대학교 교수
-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창학, KOTRA
-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
-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이종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Ⅱ. 주요 논의사항

□ 북한의 주요 공업지대 현황

- 북한의 공업지구는 크게 9개로 구분되는데, 서해안 지역에 신의주·안주·평양·해주 공업지구가 있고, 동해안 지역에 원산·함흥·김책·청진 공업지구, 내륙북부에 강계공업지구가 있음.
- 신의주공업지구는 화학섬유, 제지, 방직, 기계, 조선 등의 산업이 입지해 있음.
- 안주공업지구에는 정유 및 석유계열산업과 제지업에 특화되어 있음.
- 평양공업지구는 전기, 전자, 정밀기계, 철강, 조선, 판유리, 방직, 사료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음.
- 해주공업지구는 시멘트, 제련 및 인비료 생산에 특화해 있음.
- 청진공업지구는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 산업이 입지해 있음.
- 김책공업지구에는 제강, 화학, 제련, 조선, 내화물, 펄프, 제지, 합판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 있음.
- 함흥공업지구는 비료 등 각종 화학공업의 중심지이며, 제련 및 기계산업도 입지해 있음.
- 강계공업지구는 공작기계, 정밀기계, 및 군수품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음.

□ 산업별 입지요인

- 노동시장관련정보: 지역별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 산업별 특성관련정보: 천연자원의 지역분포, 기존의 산업분포
- 운송비관련정보: 지역별 철도 및 도로, 항만확충,
- 설비투자비용: 지역별 전기, 공업용수 공급원
- 시장관련정보: 지역별 시장 규모

□ 공업현황 및 입지요인을 고려한 북한내 공업지대 평가

- 평양공업지구에는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섬유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비금속 광물 (유리 시멘트 등)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기 전자 등)이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주공업지구에는 화학품 및 화학제품(비료, 의약품 등)제조업, 비금속 광물 (유리, 시멘트 등)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로 화학제품 관련 산업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의주 공업지구는 섬유제품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일반기계, 특수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등)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해주공업지구는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기 전자 등),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반도체 포

함)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유리함.

- 강계공업지구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조업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나타남.
- 청진공업지구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입지하기에 적합함.
- 김책공업지구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조업에만 우위가 있음.
- 함흥공업지구는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섬유제품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기 전자 등)에 유리한 지역으로 동해안지역의 소비재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산공업지구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일반기계, 특수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등),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반도체 포함)제조업에 우위가 있음.

□ 대북 직접투자시 고려사항

- 업종별 대북투자의 적합성을 판별함에 있어 기업의 투자유인과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 기준으로 업종별 노동집약도, 업종별 평균고정자산, 업종별 아시아 5개국(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평균 직접투자규모, 업종별 아시아 5개국에 대한 직접투자빈도, 업종별 기술

격차, 업종별 종사자의 단순비숙련도 등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여, 이 지표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중단기 대북투자 유망업종을 선정함.

□ 중단기 유망 대북 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이들 업종들은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이며, 이미 남한에서 제3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들로서 북한과의 기술격차가 작은 산업들임. 또한 단순비숙련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음.

□ 장기적 안목으로 대북투자가 추진되어야 하는 업종

- 중단기적으로 투자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업종들로는 ▲담배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등을 들 수 있음.

- 해당 업종들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숙련도를 가진 노동력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중단기 대북투자 유망업종들의 북한내 입지선정

- 현재 북한이 공업지역으로 개발한 9개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선정을 고찰하였는데, 입지선정에 있어 핵심 고려사항으로는 토지, 노동력, 노동력의 숙련도, 철도 및 도로, 항만, 에너지, 전력, 용수 등임.
- 결과적으로 서해안지역은 경공업의 입지에, 동해안지역은 중화학공업의 입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음.
- 서해안의 신의주, 안주, 평양·남포, 해주, 개성 등이 경공업 관련 업종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함흥만이 경쟁력을 갖고 있음.
- 반면, 청진공업지구는 중화학공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으며, 강계지역은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